최근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정보 검색용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하지만, 영상은 이에 굴복하기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쟁자가 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공지능 이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상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짚으며, 1956년 ‘세상을 알아보는 기계’와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인공지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거듭된 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학습 기반 시스템으로 진화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언어의 규칙과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즉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내용적으로 오류가 포함된 답변을 생성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된 ‘Chain of Thought’는 단순한 결과 산출이 아닌 사고 중심의 추론 과정을 중시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모방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적 존재로 한정하지 않고, 감정적 교류의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인공지능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인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통찰이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영화나 만화에서 ‘기계는 감정이 없고 차가운 존재’로 그려져 왔던 보편적인 인식이, 불과 몇 년 사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이 변화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효율적인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 인간성 회복과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반부에서는 인공지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AI 에이전트(AI Agent)를 직접 사용해보기, 둘째,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체험해보기, 셋째, 5분 분량의 단편영화를 제작해보기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협업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였다.

영상이 전하고자 한 핵심을 되짚어보면 결국 ‘판단력’의 중요성으로 귀결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지만, 그중 무엇이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인지를 선별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의존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정보 선별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 나는 인공지능을 과제나 자료 검색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 정도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산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특히 “인공지능을 더 잘 이해한 사람이 경쟁 우위를 점한다”는 메시지는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나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실현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지적 동반자로 활용하고자 한다.